



미디어 앤 아트 관람객 동향

김민영, 미디어 앤 아트 부장



미디어 앤 아트 소개

2014 • 10 반 고흐 10년의 기록전 용산 전시(25만 명 동원) - 국내 최초 미디어아트 전시

2015 • 05 반 고흐 대구 전시

06 JTBC 드라마 '마녀보감' 공동 제작

2016 • 01 반 고흐 인사이드(인상주의) 서울역(15만 명 동원)

06 반 고흐 인사이드(인상주의) 제주(10만 명 동원)

09 신인상모네 상해, 심천, 광주, 중경, 항주

12 클림트 인사이드 서울(12만 명 동원)

2017 • 01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미디어아트 사업자 선정 - 18년 9월 미디어아트 오픈

05 애니플러스샵 시공

08 엘리스: 인투 더 래빗 홀 서울(25만 명 동원)

10 반 고흐 인사이드(인상주의) 박수근 미술관

2018 • 04 엘리스: 인투 더 래빗 홀 중국, 북경(8개 도시 투어 시작)

06 엘리스: 인투 더 래빗 홀 중국, 항주

2018 • 08 슈가플래닛 서울

09 엘리스: 인투 더 래빗 홀 제주

11 엘리스: 인투 더 래빗 홀 홍콩

엘리스: 인투 더 래빗 홀 중국, 상해

12 엘리스: 인투 더 래빗 홀 중국, 심양

2019 • 04 반 고흐 인사이드 2: 더 라이트 팩토리 김포

06 내 이름은 빨강머리 앤 서울

07 엘리스: 인투 더 래빗 홀 대만

09 엘리스: 인투 더 래빗 홀 중국, 우한

2020 • 07 유미의 세포들 특별전 서울

11 무민 오리지널: 75주년 특별전 서울 예정

SPACE MAKER

(주)미디어앤아트는 대중에게 상상 속 세계를 시각화하여 제시합니다.

빛, 조명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인스톨레이션, BGM, 캐릭터로 구성된 공간은 일상의 세계와 전혀 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현재까지 100만 명(국내)이상의 관람객이 관람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 콘텐츠 제공을 통해 지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공간 콘텐츠의 새로운 방향 제시

(주)미디어엔아트는 유명 공간 스튜디오, 아티스트 그룹, 셀리브리티들과 협업하여, 예술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과 감상 방식의 확장을 모색합니다.

당사가 진행한 프로젝트들은 대규모 파이낸싱 유치 및 성공적인 관람객 동원을 통해 검증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개념의 공간 콘텐츠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01 대규모 파이낸싱 투자/유치

대형 벤처캐피탈 투자를 통해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역량 검증



반 고흐展 투자한 VC들, IRR 30% 웃돌아

전시료 맞보기 힘든 이례적 수익률... 비밀은 '디지털전'

16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KTB네트웍스, SBI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등 10개 VC가 반 고흐 서울전의 회수(엑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들 벤처캐피탈의 내상회하여 투자자본수익률(ROIC)은 25%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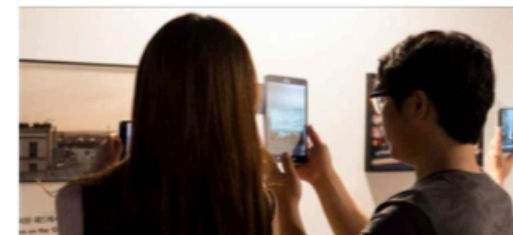
02 외부 전문가 그룹과 협업

영상, 음악 등 분야 별 전문가들과 협업,
새로운 미술 감상법 제시



03 트렌디한 기술 접목

홀로그램, VR, AR, 영화 합성 등
진일보 된 기술 접목



04 셀리브리티 마케팅

MBC 나혼자산다 등 PPL, 장근석,
박서준, 한예슬 등 홍보 대사 가용



누적 **관람객 수**

국내외 최대 관람객 동원 기록 (주관 전시 기준)

2,500,000

(국내, '19년 인터파크기준)

프로젝트 **파이낸싱**

총 85억

전시 **시장 점유율**

전시 시장 점유율, 국내 유일 '16년 ~'19년 4년 연속 3위 내 랭크 (인터파크 기준)

15%

('16년 인터파크기준)



전시 제작사 중, 국내 유일 4년 연속 3위 내 랭크 (2016년 ~ 2019년)

[2018]

랭킹	업체명	점유율	구분	비고
1	빅히트엔터테인먼트	17.5%	자체제작	BTS(방탄소년단) 특별전
2	미디어엔아트	7.2%	자체제작	ALICE, 슈가플래닛
3	대림미술관/D뮤지엄	5.2%	라이선스	나는 코코 카피탄 등 4개
4	인터파크	4.7%	라이선스	루나파크 전
5	M 컨템포러리	4.2%	라이선스	마르크 샤갈 전
-	기타	61.2%		

[2019]

랭킹	업체명	점유율	구분	비고
1	지엔씨미디어	15.2%	라이선스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 미니언즈 특별전
2	미디어엔아트	5.1%	자체제작	내 이름은 빨강머리 앤, 슈가플래닛
3	마이아트뮤지엄	5.1%	라이선스	알폰스 무하전
4	씨씨오씨	3.1%	라이선스	에릭요한슨 사진전
5	인터파크	3.0%	라이선스	베르나르 뷔페전
-	기타	68.5%		

전시 제작사 중, 국내 유일 4년 연속 3위 내 랭크 (2016년 ~ 2019년)

[2016]

랭킹	업체명	점유율	구분	비고
1	미디어엔아트	15.3%	자체제작	반 고흐 인사이드, 클림트 인사이드
2	지엔씨미디어	14.6%	라이선스	드림웍스 특별전, 오르세미술관전
3	대림미술관/D뮤지엄	9.4%	라이선스	COLOR YOUR LIFE, 디뮤지엄 개관 특별전 등 4개
4	KBS미디어	3.9%	라이선스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
5	조선일보	3.3%	자체제작	이중섭, 백년의 신화
-	기타	53.5%		

[2017]

랭킹	업체명	점유율	구분	비고
1	지엔씨미디어	17.5%	라이선스	픽사 애니메이션 특별전
2	미디어엔아트	11.4%	자체제작	클림트 인사이드, 엘리스
3	지케이엠에스	7.3%	라이선스	디 아트 오브 더 브릭
4	대림미술관/D뮤지엄	5.2%	라이선스	닉 나이트 사진 전, YOUTH 등 4개
5	CJ E&M	4.2%	라이선스	명탐정 코난 테마전
-	기타	54.6%		

YUMI'S CELLS

대한민국 최초 단독 웹툰전
네이버 인기 웹툰!

컷툰, 일러스트,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구성된 종합전시

전시 개최

2020.07.15 ~ 2021.03.14 그라운드서소 서촌



MOOMIN

무민 75주년 특별전

무민 가족이 전하는 삶의 철학 75주년 기념 특별전

원화, 원작삽화, 몰입형 맵핑등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반
대형 캐릭터 전시

전시 개최

2020.11 예정 그라운드시소 성수

© Moomin Characters™



미디어 아트 전시 현황

- 미디어 앤 아트는 반 고흐 100년의 기록을 시작으로, 반 고흐 인사이드, 클림트 인사이드, 슈가 플래닛, 빨간 머리 앤 등의 디지털 전시와 인스타그램머블 전시를 진행했으며, 국내외 최다 관람객 동원 기록을 수립함 (250만명).
- 현재는 유미의 세포들전과 무민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무민전의 경우에는 성수 생각공장 이외에 다른 분관 전시 공간에서 전시가 진행될 예정임.
- 일반적으로 적게는 20만, 많게는 40만 이상의 관람객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람객 조사를 실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기술의 부재로 실행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현상은 국내 박물관 및 미술관, 그리고 전시기획사의 공통적인 문제점임.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력

- 세계 미술관·박물관의 3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나도 다시 문을 열지 못할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어쩌면 감각과 경험 등 모든 것의 근본을 되짚어보는 원시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음.
- 이러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이어 19일부터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7개 소속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등 4개 국립공연기관을 휴관하고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도 중단되었음.
- 코로나 19의 영향력으로 인해, 미디어 아트의 경우 올해 전체 관람객의 70% 감소가 있었으며, 현재 상황에선 분관 운영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미디어 앤 아트는 기존의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 유미의 세포들전과 무민전의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기반으로 기획되었음. 코로나 19가 관람객 유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유미의 세포전의 경우, 개관 초 매일 3000여명의 관람 유입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100명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관람객 연구를 위한 관람객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인공지능 기반의 관람객 연구는 박물관, 미술관, 전시기획사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음.
-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 변수를 사용, 관람객 예측이 가능하다면 경영전략에 직접적 반영이 가능해서 전시 규모 및 개관 시기 등의 조정 등 경영 리스크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